



<future+eureka>

# '퓨레카' 미래를 바꾸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2022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광주시와 광주과학문화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퓨레카(Fureka)!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다.

과학관 야외광장에서 창의발명마당, 미래상상마당, 기초과학마당, 과학문화마당 등 6개 마당 58종의 체험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창의발명마당에서는 '우리집 아옹이 지킴이', '날아라 페가수스' 등 STEAM 융합체험과 발명교육을 즐길 수 있다. 미래상상마당에서는 '인공지능을 꿈으로 말해요', '드론을 코딩하다' 등 첨단 과학기술을 만나볼 수 있으며 기초과학마당에서는 '사랑의 러브미터', '으스스 귀신집 만들기' 등 기초과학 원리를 경험할 수 있다.

특별강연도 준비 돼 있다.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을 수상한 발명가 김명철

국립광주과학관, 15~16일 '2022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창의 발명·미래 상상 등 6개마당 58종 체험...특별강연도

의 발명특독 강연 '나도 발명할 수 있어!'가 행사 첫날인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또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는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수요 일엔 바다특독 '왜 북극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만나볼 수 있다. 16일 오후 2시 30분에는 고성영 전남대학교 교수의 금요일에 과학터치 '의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로봇기술-수술 로봇' 강연이 펼쳐진다.

보다 다채로운 체험거리도 마련됐다.

1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튼튼먹거리 탐험대,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의 푸름이 이동 환경 교실 등 이동체험차량 탑승을 시작으로, 국립광주과학관 루체리움 스타카와 사이언스 스킨차량,

2050 탄소제로시티 특별전과 2022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 등도 함께 진행된다.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발명과 미래를 테마로 다양한 야외 체험부스와 부대행사를 준비했다"며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즐기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개최소감을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난 2019년 열린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행사 전경.

## 스물살 네이버 '지식인'...10~20대 가장 많이 이용

누적 이용자 3천200만명...데이터베이스 8억 건

네이버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인'이 20주년을 맞았다.

네이버는 2002년 10월 7일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묻고 답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지식인의 누적 이용자가 탄생 20년만에 3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질문은 3억 건, 답변은 5억 건이 오갔다. 지난해 새로 유입된 질문자는 100만 명, 신규 답변자는 7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0대·20대 비율은 56%에 달했다.

네이버 지식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연간 질문 3000만 개와 답변 6000만 개가 생성됐으며, 하루 평균 페이지뷰는 약 3000만 건을 기록했다.

지식인에서는 6600여 개 범주에서 문답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의사,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답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누적 답변 수는 700만 개를 넘겼다. 한국장학재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483개 기관·기업도 '지식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교육·학문', '진학·진로' 등의 주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20대는 전공, 아르바이트, 경제, 연애에 대한 정보를 지식인에게서 얻었다.

네이버는 지난달 '질문 끌어올리기' 기능을 추가해 답변이 누락된 질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답변자 전문성을 표시하기 위해 지식인 명함인 프로필 카드도 개편하고 해시태그(#)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인 이벤트 페이지 '모두가 지



식인20년이다'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준원 네이버 지식인 리더는 "지식인에 쌓인 데이터베이스 8억 건은 지난 20년간 사용자들의 자발적 선의가 모인 결과"라면서 "다음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신비한 날씨를 담다

국립광주과학관, 16일까지 '2022 기상기후사진전'

신기하고 아름다운 기상현상과 우리 생활 속 날씨...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6일까지 과학관 상설전시관 2층에서 '2022 기상기후사진전'을 연다.

광주지방기상청과의 협력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별한 30여점이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도 함께 전시된다.

기후변화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그림, 캘리그라피, 3줄 스토리, 6행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상기후의 중요성을 알리

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을 이용하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 작품해설과 함께 영상공모전 당선작도 살펴볼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생활 속 진귀한 기상기후 현상을 담은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기상기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날씨와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이휘소상' 수상자에 샴오강원 MIT 교수

올해 '이휘소상(Benjamin W. Lee Professorship)' 수상자로 샴오강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물리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가 밝혔다.

샴오강원 교수는 응집물질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로, 2012~2016년 페리미터 이론물리 연구소 아이작 뉴턴 그룹 의장을 지내고 2018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원이 됐다. 그는 수상을 계기로 오는 12~14, 17일 포항 아태 이론물리센터에서 물리학 분야 연구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강연은 '대칭성의 자발적인 깨어짐으로 기술되지 않는 물질의 새로운 양자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샴오강원 교수는 오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물리학회 가을 학술 논문발표회와 정기총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시상식에도 참석해 특별 강연을 한다.



샴오강원

이휘소상은 이론물리학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이휘소 박사의 이름을 딴 국내 유일의 학술프로그램이다. 아태 이론물리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전도유망한 과학자를 찾아 시상한다.

이휘소 박사는 세계적인 한국계 이론물리학자로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정립과 참 입자의 탐색에 관한 연구로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